

보도자료



보도 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 일시	2023. 3. 30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 당	과장 안도현, PM 한은정(032-453-7391)

인천시 트리플스트리트 투자 성공적 마무리

(주)인천투자펀드2 주식 매매계약 체결...중단 복합쇼핑몰 정상화위해 투자회사 설립 10년만 “시 재정 기여·공공 투자 성공적 모델...송도재미동포타운 성공적 완료에 최선”

- 중단된 교외형 복합쇼핑몰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투자가 2배의 이익을 남기고 트리플 스트리트 조성 완료로도 이어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‘(주)인천투자펀드2 주식 매매계약 체결식’을 가졌다고 밝혔다. (주)인천투자펀드2는 트리플스트리트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송도 재미동포타운 사업과 분리해 지난 2021년 (주)인천투자펀드를 분할시키고 남은 존속 회사이다.
- 주식매매 계약의 주요 내용은 △(주)인천투자펀드2의 인천시 지분 250만주(250억 상당)를 1주당 2만원에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을 위해 참여한 민간 사업자인 (주)리앤한에 매각하고, △매각 후에 민간 주주에게 투자 이익이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매각 원가 대비 10년 동안 10%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천시 지분을 만큼 환수할 수 있게 하며, △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 등이다.
- 이번 주식 매매 계약 체결에 따라 중단된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정상화를 위

해 지난 2012년 시작된 추진된 인천시 투자는 트리플 스트리트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과 투자금 250억원을 500억원으로 회수하는 성공적인 결과로 완료됐다.

- 트리플 스트리트는 지난 2006년 당초 연수구 송도동에 교외형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로 지난 2012년 지하 주차장 골조 공사만을 마친 채 중단 위기를 맞았다. 이어 인천경제청의 공적 자금 투입이 결정됐고 인천경제청이 민간 투자사를 성공적으로 유치, 지난 2013년 (주)인천투자펀드를 설립해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.
- 이후 (주)인천투자펀드를 포함한 1,9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, 지난 2017년 4월 180여개 임대 매장으로 구성된 트리플스트리트가 성공적으로 개장했으며 인천시는 민간 주주들과 함께 6년간 트리플스트리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왔다.
-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△2013년 당시 출자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점, △인천시 공공자금의 안정적 회수가 필요한 점, △공공기관인 인천시가 민간의 영역인 복합쇼핑몰 지속적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검토해 관련 법에 따라 증권사에 위탁,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. 이어 지난해 말 인천시 주식을 대주주인 (주)리앤한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한 안건을 제283회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동의를 받았다. 이번 주식매매 계약은 이에 따른 후속절차다.
-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“남은 (주)인천투자펀드가 출자한 송도재미동포타운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유정복 인천시장은 “(주)인천투자펀드 설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공적 자금 투자에 대한 수익도 확보, 시 재정에 기여하고 공공 투자의 성공적 모델이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